

# 다도해가 한 눈에... 고흥 우주발사전망대 '힐링 관광지'로

### 개관 10년...노후 테크·난간 재설치, 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 등 정비 사계절 공원 7월까지 조성...편백 치유의 숲 등 연계 대표 관광지 기대

고흥군 우주 발사전망대가 힐링 관광지로 새롭게 탄생한다.

고흥군은 나로우주센터 발사지와 다도해 절경을 조망할 수 있어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관광객의 사랑을 받은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일원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고흥우주발사전망대는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발사기지인 나로우주센터와 해상 직선거리로 17km에 위치해 누리호 발사 장면을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고 고흥-여수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팔영대교를 통해 진입하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는 등 고흥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영남면 남열리에 위치한 우주 발사전망대는 지하 1층, 지상 7층 구조로 2013년 1월에 개관했다. 이곳은 360도 회전하면서 환상적인 해안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회전 전망대와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우주도서관 및 VR 체험관 등이 조성돼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지만 개관한 지 10년이 지나 일부 노후시설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군은 전망대 데크와 난간 재설치, 주차장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 등 기반 시설을 재정비하고 사계절 공원을 7월 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정비

기간에도 7층 전망데크는 정상 운영되며, 5월 예정된 누리호 발사 장면을 이곳에서 조망할 수 있다.

군은 전망대 일원 관광지가 정비되면 일상의 활력을 주는 힐링 관광명소로 탈바꿈해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붕없는 미술관 고흥'의 아름다운 매력도 한층 더 부각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전망대 재생사업을 통해 발사 전망대 일원을 힐링 관광지로 새로 단장하고 주변에 남열해돋이해수욕장, 미르마루길,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등 풍부한 관광자원들과 연계해 우주 발사전망대가 고흥의 랜드마크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고흥 우주발사전망대.

## 순천시, 국제정원박람회 앞 벚꽃길 잡상인 단속

### 10월까지 박람회장 내외부 주차장·동천 도로 등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순천시가 정원박람회장 주변과 동천 벚꽃길 등 잡상인 단속에 나섰다.

순천시는 지난 13일부터 단속구역 12명, 공공근로 16명, 공무원 18명 등 하루 46명의 인력을 동원해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동천과 주변 도로, 오천그린광장 도로 등을 순찰하며 잡상인을 단속하고 있다.

용역업체로 구성된 단속반은 잡상인들이 자리를 선점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사전 계도기간을 정하고 동천 주변과 주요 장소에 홍보전단지 배부, 현수막 등을 설치해 잡상인 진입을 방지했다.

순천시의 불법 상행위 단속 의지는 10년 만에 열리는 국제행사인 2023정원박람회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만큼 기업형 노점상과 관광버스 내 불법 상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2013년 박람회 때에도 주차장 내 관광버스 안에서의 상행위가 성행해 강력한 단속을 펼친 바 있다.

시는 도심에 지나 순천만으로 나가는 동천의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부터 단속용역 인력을 2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박람회가 개막되면 박람회 내·외부 주차장(임시 주차장), 오천그린광장 등, 순천만가든마켓 주변 및 달빛 야시장까지 확대해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단속기간은 박람회가 끝나는 10월 말까지다. 도로, 공원, 주차장 내·외에서의 차량 이용 노점상과 포자, 손수레, 카트 등 좌판 및 보따리 노점 행위, 주차장 내 단체관광버스 내에서의 영업행위 등 단속 대상이다.

단속지역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내·외부 주차장, 동천 및 주변 도로, 오천그린광장 및 주변 도로, 경관 농업 단지 등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8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대한민국의 이정표가 될 웰니스와 힐링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만큼 노점상을 이용하는 행위, 노점상의 영업행위가 없는 박람회가 되도록 시민들의 품격 높은 의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곡성 '백세미 누룽지' 포장 자동화로 '수익 확대'

### 군, 1억8천만원 투입 설비 지원

곡성군이 유기농 친환경 쌀 '백세미' 포장 자동화를 추진하며 판로 확대에 나선다.

곡성 석곡농협은 지난해 백세미를 활용한 '컵 누룽지' (사진)를 생산하고 있는데, 곡성군은 이를 위한 '누룽지 자동 포장시설' 지원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그동안 누룽지 컵은 위탁생산 방식(OEM)으로 만들어졌다.

컵 누룽지 1개를 포장하는 데 550원이 드는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곡성군은 1억8000만원 사업비를 들여 '누룽지 포장 자동화 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21년 12월 시험 가능한 백세미 누룽지 공장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누룽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곡성군의 친환경 쌀 소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추진한 '들녘 단위 규모화 친환경 쌀 산업 고도화 단지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의 하나다. 석곡농협 백세미 방앗간 부지에 330㎡ 규모로 조성했으며, 건조 시설도 지난해 추가로 구축했다.

백세미 컵 누룽지는 '농협 기프트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곡성 백세미는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3년 연속 선정된 지역 대표 특산물이다. 지난해 1137t을 판매하며 4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대부분 밥쌀용으로 판매됐지만, 최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누룽지 가공식품이 개발되면서 지난해 누룽지용 쌀로 18t이 쓰였다.

석곡농협은 곡성군과 협업체 유기농 친환경 농업 계약 재배단지를 조성했으며, 이곳에서는 종자·육묘 공급, 병해충 방제, 수확, 건조, 가공 등 모든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kwangju.co.kr

## 보성군, 보성 배경 영화 '상쇠' 제작 지원



김철우(가운데) 보성군수와 고태영(왼쪽 두 번째) 스타지오네코리아 대표 등이 영화 '상쇠' 제작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 스타지오네코리아와 업무협약

보성군은 최근 (주)스타지오네코리아와 영화 '상쇠' 제작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와 고태영 스타지오네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영화 '상쇠'는 보성을 배경으로 촬영된다. 전통문화를 지켜내려는 이들과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측이 대립과 화합을 스크린에 담을 예정이다. 제작에는 영화 '올드보이' '친구' 등을 제작한 김동주 총괄 기획자와 영화 '쉬리'와 드라마 '궁' 등을 제작한 이관학 감독 등이 참여한다.

/보성=김은백 기자 kyb@kwangju.co.kr

## '집을 위한 인문학' 특강

### 광양중마도서관 다음달 26일 10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

광양중마도서관이 다음달 26일 오후 7시 중마도서관 어린이실에서 월간 인문학 제2차 강연 '집을 위한 인문학' 특강을 개최한다.

강연은 건축을 주제로 생명력을 지닌 집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과 다양한 사례 탐구를 통해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진행을 맡은 노은주 건축가는 건축사사무소 가온건축의 소장자로 2020년 아시아건축가협회 건축상, 2012년 한국건축가협회 특별상 아천상, 2011년 한국공간디자인대상 대상 등을 수상했다.

이번 강연은 4월10일 오전 10시부터 광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와 전화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김미라 광양중마도서관 운영과장은 "이번 건축 인문학 강연을 통해 삶과 일상이 풍부해질 것 같다"며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증진할 수 있는 다채로운 강연, 체험활동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곡성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 다음달부터 128개 마을에 조리비...여성농업인 가사 부담 경감

곡성군이 농번기를 맞아 농민의 식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곡성군은 농사가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점심공동급식을 운영하는 지역 128개마을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곡성지역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2만5422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9193명(36.2%)이다. 총 1만2761가구 중 1인 가구가 5307가구(41.6%)로 가장 많았으며 2인 4396가구(34.4%), 3인 1687가구(13.2%), 4인 이상 1371가구(10.7%) 순이다.

마을공동급식은 농사를 짓는 고령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사업으로 각 마을에서

지정된 1-2인이 단체급식을 할 수 있는 마을회관 등에서 식사를 준비한다.

급식 지정자는 단체급식에 필요한 위생·안전교육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급식마을에는 조리원의 인건비와 부식비 등 최대 242만원까지 지원된다. 공동급식이 어려운 마을은 반찬을 공급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철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줄여주고 급식을 통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지원 방식 다양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kwangju.co.kr

## GS칼텍스 노사, 여수 증고생에 학습비



GS칼텍스 노사는 최근 여수지역 증고생의 학습비 지원을 위해 '2023 여수교육지원청 맞춤형 학습교실 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S칼텍스 제공)

GS칼텍스 노사는 여수교육지원청이 진행하는 '맞춤형 학습교실'을 통해 여수지역 저소득층 증고생의 학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학습교실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여수교육지원청과 GS칼텍스가 함께 저소득층 증고생의 안정적인 학습여건을 조성하고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야간 공부방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노사는 지역 증고생들에게 18년째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전광민 GS칼텍스 노조위원장은 "노사 모두 지역 학생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후원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광양 서천변 산책로 노후 포장재 교체



광양시가 오는 5월 광양읍 서천변의 오래된 산책로가 포장 교체 공사를 벌인다. 들뜨고 훼손된 산책로 포장. (광양시 제공)

### 2억 투입 서천변 개선공사

광양시 광양읍은 오는 5월에 서천변의 오래된 산책로 포장재를 바꾼다고 27일 밝혔다.

서천변의 고무칩 탄성포장은 지난 12년 전 설치된 뒤 포장재의 들뜸 현상이 잦았다.

광양시는 도비 8000만원과 시비 1억2000만원 등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서천변 개선공사를 벌인다.

교체 공사에는 시트형 탄성 포장재를 활용한다. 탄성포장 교체는 음악 분수대, 체육공원, 불고기 특화거리 둔치 구간 등에서 진행된다.

김중호 광양읍장은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탄성 기능이 있는 시트형 탄성 포장재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공사가 완료되면 시민들이 한층 더 쾌적하고 편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